

啓明大, 연변 조선족 기술대학과 자매결연
 계명대는 지난 5월 31일 조선족 기술대학 설립학장인 김진경 박사를 초빙하여 '21세기 세계속에서의 한민족의 역할과 위치'라는 주제의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특강이 끝난 후 양교의 자매결연 추진식이 있었는데, 양교는 이를 계기로 상호 이해 증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高麗大, 부속병원 신축 안암동 이전
 해화동에 위치했던 고려대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안암동 고려대 綠地캠퍼스 안에 신축된 병원으로 이전하여 7월 22일부터 첫 진료를 시작했다. 착공 4년 2개월 만에 완공된 신축 병원은 2만 8천 여 평의 대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7층, 옥탑 2층 규모인데,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과 7백 50개의 병상을 갖추어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大邱大, 동·서구문제연구 학술회의 개최
 대구대 동·서구문제연구소는 지난 4월 26일 1시에 본관 회의실에서 30여 명의 교수를 포함하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박수호교수(유즈노사할린스크 국립교육대)가 「사할린 조선인들의 현실과 장래」, 박영준씨(알마아타 조선말 방송국 해설위원)가 「소련의 공산주의의 현실과 장래」, 김연수교수(同 연구소장)가 「한국의 대소정책의 평가와 진로」라는 주제를 각각 발표하여 한국과 소련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모색하였다.

한편, 대구대는 올해부터 학생들이 학점 관리를 위해 점수가 좋지 않은 과목의 성적을 취소할 수 있는 성적취소제도를 도입했다.

大韓體育科學大, 독일體育大와 자매결연
 대한체육과학대학은 지난 8월 16일 올림픽유스호스텔에서 필른 독일체육대학과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졌다. 양교는 국민체육생활 분야의 발전과 향후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올림픽유스호스텔에서 학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했었다.

東國大, 美·蘇 3개大와 자매결연
 동국대 閔丙天 총장은 지난 7월 10일부터 27일까지 미국·소련 등을 방문, 미국의 뉴욕주립대학, 소련의 모스크바상업대학 및 세프킨예술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세프킨예대와 결연은 국내 종합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예술 분야의 대학간 교류를 성사시킨 것이었다. 특히, 모스크바상업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있는 同 대학 푸친총장과 閔총장과의 10여 시간에 걸친 토론에서는 소련의 경제 발전 전망과 개방 조치, 한반도 통일문제, 한·소 협력문제 등이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한편, 閔총장은 '87년에 자매결연을 맺었던 독일의 레겐스부르크대학을 방문, 同 대학에 한국학과를 개설하고 오는 '92년부터 동국대 교수진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서울大, 직선총장에 金鍾云교수
 정부는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金鍾云(62·영문학) 교수를 서울대 총장으로 확정하였다. 신임 金총장은 지난 7월 16일의 총장후보 선거에서 '세계 속의 서울대'를 만들고 교수안식년제 도입, 제2 캠퍼스 조성, 학내 행정의 효율적 개편, 건전한 학생운동 보장 등의 공약을 내세워 金榮國 現 부총장과 함께 총장 예비 후보로 선출됐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개교 45년만에 첫 직선총장을 맞게 되었다.

延世大, 동서문제연구 학술회의 개최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은 지난 6월 4일 알렌관회의실에서 '한·소 정상회담과 남·북한 관계'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한·소 수교가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전개한 이번 학술회의는 「한·소 정상회담과 한·소 관계 발전 전망」, 「한·소 정상회담과 한·중 관계 발전 전망」, 「한·소 정상회

담과 남·북한 관계 발전 전망」의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소련문제 연구자인 정한구 박사(세종연구소)와 중국 개혁 정치에 대한 전문가 김동성 교수(중앙대·정치학), 북한·공산권문제 연구자인 연세대 최평길 교수(사회대)가 각 주제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편, 同校 환경공해연구소는 지난 6월 4일 한국종합전시장 국제회의실에서 「음용수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수질기준」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음용수의 수질 기준의 일반항목」(전국대 공대 남상호교수), 「음용수 수질 기준의 중금속」(한국과학기술원 도핑콘트롤센터 박종새소장), 「음용수 수질 기준의 유해화학물질」(의과대학 신동철교수), 「음용수 수질기준의 미생물」(보건과학대학 정재춘교수) 등 4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梨花女大

교수연구년제·명예교수제 실시확정

이화여대는 7월 19일 교무회의에서 교수연구년제와 명예교수제를 시행하기로 확정하였다. 교원들의 연구시간 확보를 통한 학문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교수연구년제는 학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수연구년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7년 이상 근무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92년 1학기부터 시행되는 교수연구년제의 수혜자는 '1년 연구제'와 '반년연구제', '수업경감 연구년제' 중 1안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명예교수제는 퇴직 교원의 사기 진작과 학문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올해 9월 1일부터 실시된다. 대상은 전임강사 이상으로 30년 이상 근무 후 퇴임한 자 또는 20년 이상 근무하고 동교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한다.

圓光大, 소련·폴란드 두 대학과 자매결연

원광대 金三龍총장은 지난 7월 12일부터 24일까지 소련 및 동구권 대학을 방문하는 중에

소련 우크라이나공화국 키예프대학과 폴란드 포즈난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中央大, 교육문제연구 세미나 개최

중앙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는 7월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중앙대에서 '새로운 대입제도에 따른 대학별 본고사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 처음으로 대학별 고사에 대한 대학사회의 의견을 모으고 방향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이 세미나에서 대학별 고사는 주관식이나 논술형으로 계열·학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출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忠南大, 연변·호주 두 대학과 학술교류 언어문화회 전국 학술대회 및 전국 사회학대회 개최

충남대 吳德均총장은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중국과 호주를 방문하여 중국 연변농과大 및 호주 Adelaide大와의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연변農大와의 교류·체결로 기후대가 다른 조건에서의 시험 연구가 가능하고 각종 유전 자원을 도입·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호주 Adelaide大와는 人的 교류 시행을 위한 양교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한국언어문화회(회장: 사재동 교수) 전국학술대회가 지난 6월 29일 문과대학에서 개최되었다. 국내 관련 학자 1백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는 국어학 분야, 고전문학 분야, 현대문학 분야 등 3개로 나누어 진행됐다.

또한 '91년도 전기 사회학 대회가 지난 6월 28·29일 이틀 동안 충남대에서 개최됐다. 11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학회는 우리나라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공식 주제로 선정하여 각 대학 및 연구소에서 관련 학자 1백 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학회에서는 「사회학이론과 방법」(사회: 김경동, 서울대), 「산업과 노동 1」(사회: 김신웅, 한양대), 「산업과

노동 2](사회: 심운중, 성균관대), 「집중토론 1—학문의 자유」(사회: 송 복, 연세대), 「인구·도시·농촌」(사회: 안계준, 연세대), 「사회계층」(사회: 홍두승, 서울대), 「자유주제」(사회: 권규식, 경북대), 「가족과 노령화」(사회: 이동원, 이화여대), 「여성과 사회」(사회: 이은숙, 서울대), 「사회정책과 복지 1」(사회: 문석남, 전남대), 「사회정책과 복지 2」(사회: 차홍봉, 전남대), 「집중토론 2—자연과 환경문제」(사회: 이시재, 성심여대 교수) 등 11개 분과별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국립대 藝術大學長 회의 개최

국립대 예술대학장 회의가 지난 6월 28일 충남대 예술대 학장실에서 열렸다. 국립대 예술대학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입학 시험의 공정한 채점 방법을 토의한 이날 회의에서 학장들은 채점시 외부 대학교수를 1/2씩 초빙하는 교육부의 지침은 지방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教育大學長협의회 열려

안동대학 초등교육학과 신설 문제와 관련한 전국 교육대학장협의회가 지난 6월 14일 청주교대에서 열렸다. 이날 전국 11개 교대학장들은 안동대학에 초등교육학과가 설치될 경우 교원발령 적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他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초등교육학과 설치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고, 초등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무시될 것이라는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안동대 초등교육학과 신설 부당성과 현재의 초등교원 양성 체제 유지에 관한 건의서를 유형섭 교육부장관에게 보냈다.

教育部, '총·학장후보 재추천' 조항 삭제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중 교육부장관이 국·공립대학 총·학장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

다. 교육부는 이날 열린 대학교육심의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는데, 입법예고됐던 당초의 개정안은 교육부에 추천된 총·학장 후보자가 사퇴하여 후보가 1인만 남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교육부장관이 해당 대학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규정했었다. 교육부는 '이 안은 대학 총·학장의 장기간 공석 상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입법 취지와는 달리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건의때문에 삭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밖에 부교수의 정년보장제는 대학별 특성을 살려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년보장 대학교원의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대학별 총정원만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학이 교수·부교수의 정원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정부, 大學施設 개선 및 地方工大

특성화에 1조 8백여 억 투자

정부는 장래 고도 기술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산업 인력 확충 대체에 따른 국·사립대 교육시설 개선 사업을 위해 내년에 2천 1백 6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 오는 '95년까지 총 1조 8백 34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방 국립대의 特性化 工大를 지속적으로 지원, 지방대의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부산대·경북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 등 6개대에 내년부터 대학당 연간 50억 원씩 5년간 모두 1천 5백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 教授 補職 인사 □

· 高麗大

교무처장: 魚允大

기초과학연구소장: 趙成浩

통계연구소장: 金起永

· 忠南大

교육대학원장: 姜湘哲

도서관장: 조종업

신문사주간: 안근석